



아폴터사 현재 작업장 <사진 : 아폴터 테크놀로지>

스위스 아폴터 그룹(Affolter Group) 4대를 이어온 100년 역사의 노하우

세계제조업자였던 Samuel Affolter와 Marie-Louis Affolter의 차남, Louis Affolter는 1919년 회사를 설립 그 당시 스위스 세계제조사들을 위한 기어와 피봇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아폴터 가문의 9명의 후손들이 최첨단 테크놀로지 아폴터 그룹에서 일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아폴터 테크놀로지와 아폴터 피논사를 운영하고 있다.

아폴터의 100년 역사는 거듭된 기술혁신의 역사라 말할 수 있다. 루이스가 회사를 설립한 이후 루이스의 2세 André, René, Marc는 비즈니스를 더욱 번창시켜 처음으로 회사소유 상업용 부지를 갖게 되었다. 3세대에 와서는 Jean-Claude, Michel 그리고 Marc-Alain Affolte에 의해 회사는 빠른 현대화 과정을 거쳤으며 전자제품 및 하이테크 장비로 생산 공정을 향상시켜왔다.

지속 성장

아폴터 그룹은 혁신을 바탕으로 더욱 더 성장, 확산, 다양화를 이루어 갔다. 1980년 단 15명의 직원과 500평방미터 규모의 작업장이 고작이었지만 현재는 150명의 헌신적인 직원과 20명의 견습생, 8000평방미터 규모의 작업장과 4개 빌딩을 보유하게 되었다. 4세대인 Grégory와 Vincent Affolter, Nicolas Curty는 해외로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확장, 2013년 마침내 아폴터 차이나 설립 - 아폴터 사의 역사에 이정표를 세웠다.

아폴터그룹의 2개 주요 사업영역은 시계 제조 분야의 기어트레인 위탁생산과 공작기계 및 수치 제어 부문 개발, 제조, 마케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폴터 피논(Affolter Pignons) 스위스 시계 제조 분야의 기어트레인 전문 제조사로 지난 100년 동안 동력전달 기술 부문 리더 입지를 더욱 더 확고히 해왔다.



1988년 아폴터 작업장
<사진 : 아폴터 테크놀로지>

아폴터 피논사는 자동화를 통해 최고 품질의 초정밀 기어트레인 대량생산에 성공했다. 아폴터 피논사의 대표 Grégory Affolter는 “아폴터 테크놀로지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는 자사 브랜드 기계를 개발했으며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한다.

아폴터 테크놀로지(Affolter Technologies)는 마이크로공학 기어생산에 필요한, 수치제어 기어 호빙 머신 전문 설계, 제조, 위탁생산업체이다. 아폴터 테크놀로지 대표인 Vincent Affolter는 “수 십 년 동안 우리는 고객 사에게 좀 더 뛰어난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초정밀 기어 호빙 산업분야의 기술력과 혁신 부문 리더가 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라고 밝힌다. 이를 위해 아폴터 테크놀로지 사는 R&D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오고 있다. 빈센트 아폴터는 “로봇, 머신러닝, 이외에 사내에서 설계하고 개발한 CNC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인더스트리 4.0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라고 밝힌다. 아폴터 테크놀로지의 CNC 기어 호빙 머신은 세계 제조, 마이크로 공학, 자동차, 비행기, 로봇, 서보모터, 치과업계의 마이크로공학기어 생산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80 %의 기계들이 주요 시장인 유럽, 아시아, 미국에 수출되고 있다.

내일의 인재

아폴터의 도제 프로그램은 아폴터 그룹의 근간중 하나



초정밀 기어 호빙 부문 리더인 스위스 아폴터 테크놀로지 사의 정밀 기어 호빙기
<사진 : 아폴터 테크놀로지>

가 되었다. 오늘날 15명 이상의 견습공들이 사내 및 스위스 Valbirse 지역 내 6개 전문분야 네트워크 사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 아폴터 그룹 재무 총괄 책임자 Nicolas Curty는 “우리의 도제 프로그램으로 정밀공학 분야의 노하우와 전문지식이 사내에서 세대 간에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라고 밝힌다. 내일의 기계공학 엔지니어 주역들이 프로파일 터닝, 기어호빙, 연마, 조립과 같은 하이테크 분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